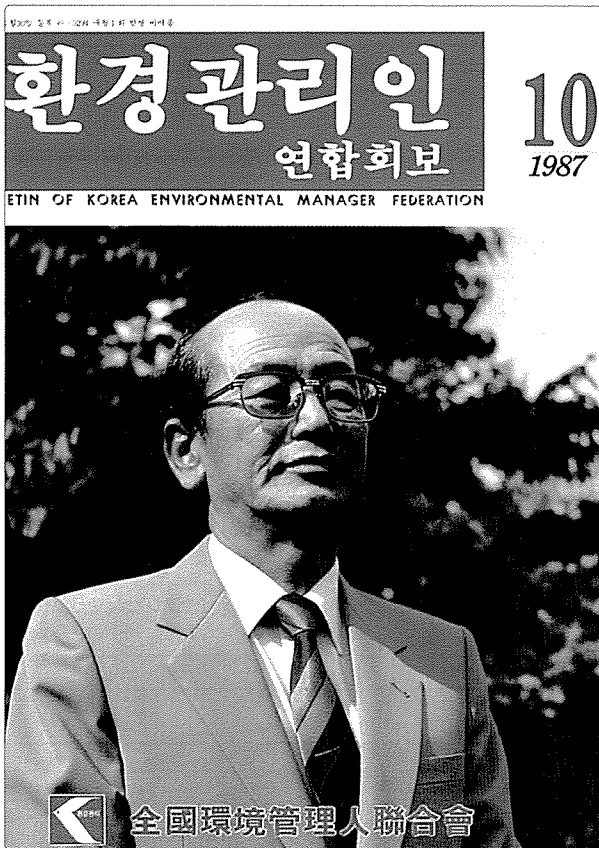


언론으로 기여한 최초의 환경인

박노경(朴魯敬) 선생 (1)

글/사진 : 박 창 근

〈본회 고문 / 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 사진 설명:

본 월간지 1987년 10월호 표지에 모셨던, 당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이셨던 박노경 박사님.

“오 늘날 爆發的 公業 生産과 모더니제이션의 발전으로 제기되고 있는 生活環境의 오염문제는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되고 있다.

물론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例外가 아니다. 서울-釜山 등 大都市와 工業단지의 大氣오염에 의한 각종 농작물의 被害, 生活下水와 각종 産業廢水에 의한 강물의 汚濁, 그로 말미암은 淡水魚의 잠적과 畸形魚의 출현, 猛毒性 農약으로 말미암은 農畜牛의 集團斃死... 등 異常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국민들은 直接-간접으로 健康상 또는 財産上 피해를 日常的으로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파괴-公害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상당히 提高되고 있는 줄 안다. 年前에 한국環境保護協이 실시한바 있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設問조사에 응한 응답자중 68%가 公害문제에 대한 認識이 분명했다는 점, 55%가 우리나라의 公害를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 70%가 당국의 公害대책이 微溫的인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認識水準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公害

문제가 前記한 것처럼 廣域化, 日常化 함에 따라 결과한 자연적인 추세라 하겠거니와, 어쨌든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環境保護의 生活化를 위해서 그리고 公害대책의 國民적인 合意와 協力基盤의 公同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중략〉

이렇게 볼 때 公害문제에 관한 國民들의 意識수준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意識水準의 向上을 위한 계몽 - 교육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서울市가 主催하고 韓國環境保護協議會(委員長 朴昌根)가 支援하여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豫정으로 서울市廳 앞 地下鐵 展示場에서 벌이고 있는 公害防止계몽寫眞展은 매우 뜻있는 行事라 생각된다.

〈중략〉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提言이 있다. 이 寫眞展의 展示범위를 전국적으로 넓혔으면 하는 것이다. 保社部같은 관계 中央官署가 主催하든지, 아니면 前記 環境보호協議會와 全國市-道당국과 개별계약을 해서 하든지, 어쨌든 전국 主要都市와 工團에서 일정기간씩 이 寫眞展示會를 가져주었으면 한다.

〈하략〉

위의 글은 박노경 선생님께서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실 때, 1997년 5월 13일자 신문에 쓰신 '사설'의 일부이다. (당시 '사설'의 한자(漢字)도 그대로 옮겼다.)

1997년에 쓴 '사설' 이면, 지금으로부터 근 30년 전의 글인데도, 내용으로 보아 당시의 환경문제가 오늘의 현실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잘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인지? 못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인지? 언 듯 판단이 안 선다.

즉, '술이 반병 남은 술병'을 보고, 어떤 이는 반밖에 안남은 것을 비판(?)하고, 어떤 이는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고 낙관하듯이, 30년 전의 상황과 오늘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여야 할지? 낙관하여야 할지 헛갈린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의 환경문제는 지역적이고, 극히 단순한(?) 것이었던 것에 비해, 오늘의 환경문제는 광역적으로 심화, 복잡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때는 정부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곳이 '사설'에 나타나 있듯이 '보사부' (현재의 '보건복지부') 내의 '공해과' 였지만, 지금은 1980년부터 '청'에서 '처'로 다시 '부'로 승격된 막강한(?) 부서로 발전했지만, 이렇다 할 획기적인 환경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오늘의 환경문제는 그때 보다, 비판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글은 당시 필자가 '한국환경보호협의회'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환경단체를 창립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에게 환경오염의 위해성을 경고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열심히 계몽, 교육할 때, 전개한 '공해' (위 '사설'에서도 보듯이 그때는 '환경오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공해(公害)'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적어도 1980년 '환경청'이 공식으로 개칭되기 전까지는...) 문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와 우리 단체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지원한 국내 최초의 '공해방지 계몽 사진전'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고 지지해주신 '사설'이다. 이토록 박노경 선생님은 일찍부터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애쓰신 '언론으로 기여한 최초의 환경인' 이시다.

〈다음호에 계속〉